

술수(傘壽)에 만난 사람들 -졸업 55 주년기념 알래스카여행

박승균 (61)

5년전 서울에서 성대한 졸업 50주년 “금축제”를 가졌으며, 금년에 들어 55주년 졸업기념으로 우리들은 여덟번째의 문집, “傘壽를 돌아본다”를 발간하고, 다시 54명 (동기생 29명과 부인들)이라는 대가족이 傘壽의 나이를 딛고 그 먼 지구의 북쪽 알래스카에서 모일수있었던것은 상상을 넘는 기적이요 기쁨이었다.

우리들의 이야기

끝없이 펼쳐진바다, 웅장하고 신비한 알래스카의 경치며 크루즈 선박에서 벌어지는 화려한 풍요도 우리의 시선을 끌었지만 이번모임의 핵심은 어디까지나사랑하는 옛친구들과 어울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자는것. 아직아무도 발설은 안했지만 모름지기 이것이우리들의 마지막만남이 될지도 모른다고 모두들 느꼈을것이다. 우리는 항해중 우리들이 전용으로 쓸수있는 방과 필요한 장비를 따로 마련하고 거의 매일 저녁 그때마다 두세시간씩을 다같이 마주앉아 서로를 마주보면서 지낼수있었으니 이것은 우리들의 가장귀중한 시간으로 영원히 우리머리속에 남게되리라.



모두들 시간을 잘 지켜주어서 참가한 동기 전원이 한사람도 빠지지않고 이야기할기회를 갖은것은 참으로 다행이었다. 이야기의 내용이며 전달방법도 각양각색이어서 어떤이는 청중의 폭소를 불러내고 어떤이는 듣는사람의 가슴을 울먹이게도 하였다. 은퇴후에찾는 새로운 취미와 봉사생활, 깊은 믿음과 신앙의 세계, 매일을 살아가는 철학과 예지, 자신의 투병기, 건강유지와 치매방지에 필수요소라는 비타민 T (togetherness, 회동)의 이야기, “통증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라는 단도직입적인 선언. 흘러간 학창시절의 추억,---. 너무 빨리도 흘러가는 시간을 나무라며 우리는마냥 즐겼다.

傘壽에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

꼭 오고싶었지만 부득이한사정으로 못오게된 친구들에게 미안한마음 금할수가없다. 한국측에선 李栽興군이 대표로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다. “- 전락 --. 우리는 한배를 타고있는 친구들입니다. 우리는 함께있습니다. 장엄하고 아름답고 신비스런 오로라같은 우리 친구들! -하락.” 미국측에서는 崔公昌군이 보냈는데, “- 전락 --, 우리는 대학동창이라는 천부의 끈끈한 인연으로 시작했고, 그것은 우연이아니라 차라리 우리들의 숙명이야니겠소? 아--! 여러분이 선상에서 부르는 노래소리! 은은히 들리는구려. ‘모닥불 피워놓고 마주앉아서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없어라’ Bravo. 부탁컨데, 한번만 더 크게 불러주세요. 그래서 젊은시절의 추억과 우리들의 우정의 불꽃이 다시 훨훨 타오르게 해주구려. -- -.“ 이 메시지를 읽고 우리는 “모닥불”의 노래를 다같이 불렀다.이노래를 처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었던 우리반의 으뜸가는 명창, 익살꾸러기 故 河祥培군을 다시아쉬워하면서.



그리고 또 우리와 유명을 달리한 친구들을 생각하며 내가 준비한 獻詩를 읽었다. “졸업하고도 쉬는다섯해, 젊은 열여덟에 우리는 만났네. 희망에 넘쳐서 만났네. 그 청순한시절, 아름답고, 가난하고 의기에 불타던시절. --- 중략---, 만나리, 우리들 다시만나리, 앞서거니 뒤서거니 우리들 또다시 만나리. 그래서 오늘, 손에손잡고 손에손잡어, 술잔높이들고 노래 부르자, 우리 모두 어울려 노래부르자.”

알래스카, The Last Frontier

우리들은 7 월 23 일, Vancouver 에서 배를타고 Ketchikan(연어, Bald Eagle, Totem Pole 의 도시), Juneau (알래스카의 수도, Mendenhall 빙하의 땅), Skagway (Gold Rush, 이곳 최초창기 창녀의집, Red Onion Saloon 이 있는 타운) 를 거치면서 그곳의 빙하와 역사적인 유적등을 구경하였는데 이동안은 거의 매일 춥고 가랑비도 내리곤하였다.

Skagway 에서 뱃머리를 돌려 Fjord Passage 를 빠져내려오면서 Glacier Bay 에 도착하였는데 여기서는

큰 轟音(굉음)과 함께 거대한 빙하가 쪼개지면서 물속으로 빠질때 (Tidal Glacier) 바다는 광란의 몸부림을치며 막강한 물길은 하늘로 치솟았다. 알라스카는 정말 신비하고 웅장했고 보는이들은 말문이 막혔을 뿐이었다.

7 월 30 일 아침, 우리의 배가 Whittier 항구에 정박했을때는, 하늘도 검푸른바다도 진한 안개로 덮여있었다. 크루즈여행만하고 한국으로 먼저 돌아가는 친구들은 벌써 Gangway 를 지나 내시야의 밖으로 멀어져가고있었다. 방금 작별의 아쉬운 포옹을 했지만 허전하고 착잡한마음은 어쩔수가 없었다.



어제 저녁에 우리는 마즈막 이별의노래를 불렀다. Auld Lang Syne 曲에 맞추어 李漢洙군이 작사한 노래다. “ (2 절)함춘원 언덕 기슭을 꿈따라 거닐던/ 그발거름 예 오면서 지치지 않던가/ 古稀이라 傘壽이라 먼길을 왔도다/ 작별의 잔을 나누세 정다운 친구들. (3 절) 저마다 갈길 떠나면 또 언제 만나리/친구들아 잊지마라 오늘의 추억을/ 古稀 라 傘壽래도 갈길 더 남았네/ 석별의 잔을 나누세 정다운 친구들.” 방금까지 수천명의 선객으로 어수선했던 식당도, 극장도, 복도도 이젠 텅 비인 황량한 사막같았다. 나는 폐허같은 갑판을 마구 걸었다.

Anchorage 육지관광

배에거 내려 뿔뿔히 헤어진뒤, 남은동기들(14 쌍의 부부) 은 버스를 이용하여 육지여행을 했다.현지 가이드 (김부장)는 박식하고 말재주도 좋아서 시간을 유익하고 재미있게 보낼수 있었다. 기차를 타고 Seward 를 가면서 눈앞에 끊임없이 펼쳐지는 삼림과 초원과 산맥위의 만년설을 보았고, 다음날 웅장한 Chugach 산맥에서는 육지의 빙하로서는 가장크다는 Matanuska Glacier 를 걸어보기도 하였다.



8월 2일에는 드디어 날이 개어서 Talkeetna 호수가에서 도시락 picnic 을 즐길수있었고 많은 친구들과 부인들은 경비행기편으로 그 이름난 Denali 산을 맴돌며 평생에 남을 좋은 추억을 경험할수있었다. 저녁에는 의례히 호텔건너편에있는 맥주집에들려 시원한 Alaskan Beer 를 마시면서 또 끝도없는 이야기로 꽃을피웠다. 우리들의 모임은 사랑과 우정과 이별의 허탈함으로 교차되고있었다. 의례히 기다리기라도 했다는듯이 누군가가 또말하더라. “우리 5년후에도, 10년후에도 또 만나자!” 이 노인들에게도 아름다운 기적은 또 찾아올것인지.

끝으로

모든 어려움을 제쳐놓고, 오직 61년도졸업동기를 사랑하는마음으로 참석해준 참석자 전원에게 감사한다, 다만 지면관계로 개개인의이름을 명시못한것을 양해해주시바란다. 피아노 반주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흔쾌히 독창도 불러주시고 합창때는 지휘도맡아주신 성악가 김문자교수(崔吉洙군의 부인)에게감사한다. 이번행사를 위해 오래전부터 수고를많이한 孫基勇군, 그리고 沈英輔, 姜昌旭 한미 동기회 회장들의 노고에 심심한감사를보낸다.